

## 일기를 통해 일상생활을 기록으로 남기자

(나만의 비밀 일기를 위하여 속기술을 익혀 평생동안 유익하게 활용하자.)

- **제목 : 일상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자 (일기)**
- 사무엘 피스(1633~1703)는 '영국 해군의 아버지'로 불릴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**피스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그가 쓴 일기 덕분이었다. 그는 자기만의 사적인 얘기를 아무도 읽지 못하게 영어 대신 젊어서 배운 속기술로 썼다.** 그리고 능청스럽게 겉장에 '고대 그리스·로마의 속기술 연구'라는 제목을 붙였다. 피스가 죽은 뒤 일기를 기증받아 해독한 케임브리지대학은 내용의 솔직함에 기겁했다고 한다.
- 한글학자 한결 **김윤경(金允經)선생**(1894~1969)은 작고할 때 까지 **60년간 일기**를 썼다. 일기는 사후 연세대 도서관에 기증했지만 20년이 지나서야 일반에게 공개되었다. 너무나 사적인 내용이 많고, 일기에 언급된 인사 중 생존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.
- 조선 후기 경북 선산 출신의 **노상추(盧尙樞)**라는 **무관(武官)**이 17세부터 **84세까지 68년** 쓴 일기를 토대로 역사학자 문숙자씨가 '68년의 나날들 - 조선의 일상사'라는 책을 출간했다.
- 그밖에 '승정원 일기'나 '충무공일기·열하일기·북정일기' 등 우리 일기문화의 전통은 튼튼한 기록정신의 저변에서 나왔을 것이다.

(출처 :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태익 / 농협동인회지)

- **제목 : 러시아 대문호를 꽃피운 평범한 일기쓰기**
- 러시아 대문호 **톨스토이**는 **60년간 일기**를 쓰며 자기 반성과 계획, 다짐을 실천했다.
- 톨스토이에게 일기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참회록이자 고백록이었다.
- 그의 내면과 인간적 완성에 일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.

(출처 : 국민은행 골드앤와이드 / 2011. 3. 1)

- **제목 : 군 생활 36년간 매일 일기 썼죠**
- 육사 32기인 **윤영수 예비역 준장**은 1972년 1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후 2008년 1월까지 **36년간 매일 쓴 일기**를 모아 '나는 행복한 군인이었다'라는 책을 발간했다.
- '앞으로 10년쯤 뒤에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일기를 통해 또 한번 발표하고 싶다'며 일기는 평생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.

(출처 : 조선일보 / 2008. 3. 21)